

육계생산자의 의식과 우리의 자세

이종길 / (본회 이사)

우리나라의 육계산업은 60년대부터 외국에서 종계가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전업농가가 늘어나고 경제성장과 동시에 육류의 수요급증으로 인하여 급성장을 하면서 국민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에도 비중높은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나 그동안 사육농가의 안일과 연관업계의 무성의, 정책의 부재 속에서 소비자의 기호를 외면하였고 상품의 개발에도 무관심하였으며 정부에서도 방관만하여 왔던 탓에 선진국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설상가상으로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이제는 과거와 같은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더 이상 육계산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연연할 수 없는 급박한 처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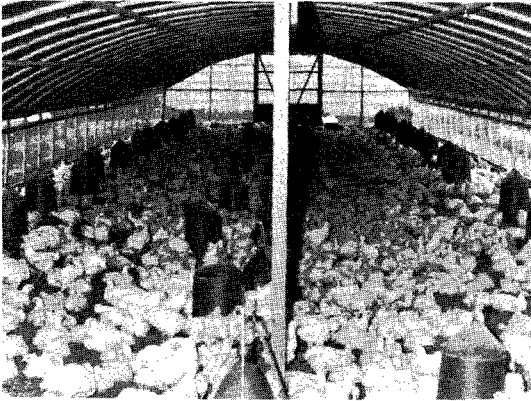
오늘 우리가 전국의 육계인 대회를 갖는 것도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서 우리의 권익을 되찾고 선진국처럼 안정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수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여러분은 모였다.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는 자기의 직업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무턱대고 사육에만 온정성을 쏟았을뿐 근본적인 육계산업의 장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세가 좋을 때는 기회포착을 잘한 자신의 노력으로 돌리고 원가 이하의 시세가 지속되면 정부를 원망하고 업계를 원망하면서도 다같이

노력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보았는지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합심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육계산업의 장래를 위하여 성의를 다할 때 우리의 육계산업은 각광받는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고 국익에도 일조를 감당할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기어코 성사시켜서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겠으며 정부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육계산업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당한 요구를 수렴하여서 우리의 육계산업이 안정되고 번창할 수 있도록 한시바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들이 꼭 이루어야 할 일과 정부에 건의할 것을 나누어서 기술코자 한다.

전국을 적절히 세분하여 지역별로 업종별 협동조합 즉 육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구매, 생산, 판매를 전담토록 하고 계열화 생산체제를 갖추어서 모든 업무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래의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

1. 전국의 모든 육계인은 협회와 정부의 협조를 얻어 육계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킨다.
2. 초생추, 사료, 약품 등과 기타 자재를 조합에서 계약하여 구입하되 질적인 보장을 약속받는다.
3. 조합에서는 회원과 계약하여 적정수수를 사육하게 하고 일반회원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원가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값싸고 질 좋은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대량 공급토록 한다.
4. 생산품은 기존 상인에게 일부를 판매하고 조합에서 기존도계장을 활용하고 부족한 시설은 보완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직접 소매상에 판매하되 생산일자, 생산자, 부위별, 무게, 가격 등을 명시해서 소비자가 싼 값으로, 일정한 가격으로,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확장하고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5. 조합에서 구입한 모든 대금은 조합에서 월말에 일괄적으로 결제한다.

6. 회원이 생산한 생산품의 결제는 원료 구입대금을 공제하고 회원의 개인통장에 입금시킨다.

7. 현재 회원이 지고 있는 기존채무는 회원, 조합, 당사자 3인이 상의해서 주기적으로 면제토록 한다.

8.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였을 때 모든 회원은 자기의 능력에 적합한 규모를 올린, 올아웃 방식으로 생산해서 정당한 사육비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성적에 따라 보너스까지 제공되며 소비자에게는 모든 자재를 염가로 구입해서 계약사육한 질 좋은 닭고기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며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가까운 외국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열거한 사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없이 불가능하므로 생산자의 단합된 노력과 협회, 연관단체, 정당, 사회단체의 힘을 빌어 아래의 사항들이 시정되고 지원이 뒤따라야 하므로 이번 기회에 기필코 관철시켜서 천대받지 않고 각광받는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될 것이다.

1.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을 직시하고 사료원료 구입시에 부과되는 관세를 연차적으로 내리려고 하지말고 내년부터 0%로 해 줄 것.

2. 사료구입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없애줄 것 (축산물의 경우 축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 줄 것).

3. 선진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현대화하여야 하므로 수입하는(실수요자) 기자재에 대하여는 관세를 물리지 말것.

4. 시설개선자금을 농장 실정에 맞추어 과감하게 지원해 줄 것.(선진국 수준으로)

5. 국내산 보리, 옥수수 배정을 중단하고 다른 분야로 돌려줄 것.(사료공장에 배정하는 것이 결국은 축산업자에게 지워짐)

6. 정부에서는 육계인들이 자구책으로 이루려고 하는 육계협동조합의 설립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줄 것.

7. 이상의 사항들을 관철시키고 지원을 받아서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육계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노력하여야 하며 위정자들도 연약한 육계산업이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함으로써 육계산업에서 야기되는 제반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들의 요구가 100% 관철될 수 있도록 과감한 노력을 당부하며 전국의 육계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숨겨온 저력을 발휘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육계산업을 우리 손으로 이룩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계기를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김기**